

제주 장애인복지 전국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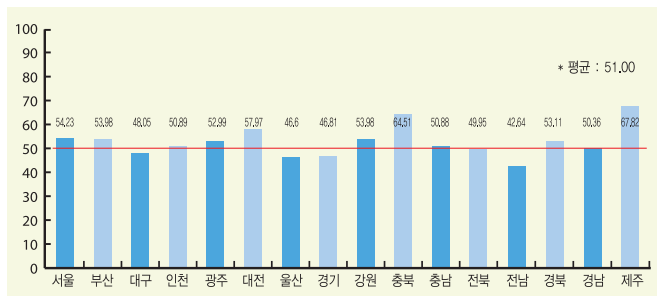
한국장총, 2008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 복지·인권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5월 26일 국회의원회당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2008 전국 장애인복지·인권수준 실태조사에서 제주도는 100점 만점에 67.82점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은 51.00점이다.

충청북도가 64.51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대전광역시(57.97점), 서울특별시(54.23점), 강원도와 부산광역시(53.98점), 경상북도(53.11점) 순이었다.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등 5개 영역 33개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등 3개 영역 1위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 전국 평균 3배 상회

지표를 활용해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 제주도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등 3개 분야에서 1위를 기록했다. 교육 영역에선 강원도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선 충남이 1위로 평가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1인당 등록장애인수에서 161명으로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해 접근성이 가장 높았으며,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역시 4만786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특별교통수단 1대당 등록장애인수는 전국 평균 2477명에 비해 현저히 적은 961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 역시 226만 137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은 67만3240원이다.

반면 장애학생 교육 여건과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에서는 하위권인 14위에 머물러 이들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총은 “지난해 상위 1~5위를 차지한 시·도가 올해도 1~5위를 기록했다”면서 “이들 지역은 비교적 장애인복지·인권 수준이 안정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지자체장은 장애인들의 욕구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복지정책 과제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1회 희망제주 복지포럼 '성황'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테마기획지원사업인 '제1회 희망제주 복지포럼'이 5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층 삼다수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대학생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사진>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와 제주도사회복지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포럼에서는 공주대학교 박순우 교수의 '사회투자전략의 지역복지적 실천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박사의 '제주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육성과 사회복지서비스 공

급 확대 방안'이란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 관련기사 7면

주제발표에 이어 제주대학교 이경원 교수와 임애덕 애서원장, 제주특별자치도종합고용지원센터 이동건 소장, 제주수출음식지역자활센터 강종우 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제주지역의 각종 사회복지 분야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분야별 주제를 선정,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비 지원

제주시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학생 343명, 고등학생 447명 등 790명으로, 이들에겐 1인당 15만원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추경예산을 통해 1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아이사랑 행복카드 인기
시설 탐방평안전문요양원
- 사회복지소식 4·5면
Top FC전국 제패·소식마당
천사의집 중국어교실·일림마당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제1회 희망제주 복지포럼

사회복지아카데미 6월 교육 안내

비영리기관의 마케팅 경영전략

일시: 6월 12일 (수) 10:00~17:00

내용: 비영리단체의 마케팅

- 공익연계마케팅, 스폰서십
- 효과적인 모금전략 등
- 지역사회에서의 이미지 구축활동
- 지역주민, 지역매체와의 관계
- 다양한 공중과의 관계

참가비: 회원 10,000원

비회원 15,000원 (수료증 발급)

국가복지정보시스템 활용교육

일시: 6월 25일 ~ 27일 09:30~18:00

내용: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운용실무

참가비: 무료

Banana Ad

바나나애드

본사 : 제주시 이도2동 1058-12 한화빌딩1층 공장 : 제주시 오라1동 1292-3

☎ 064.753.7482~3 ☎ 064.753.7487 🌐 http://www.bananai.net

www.webhard.co.kr id/pw : bananaij



Design : 디자인
Interior : 인테리어
Digital Printing : 실사출력, 인쇄
Sign : 싸인
Outdoor Advertising : 옥외광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5월 22일 제주시 청 어울림마당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홍보물 배부, 거리상담실 운영, 아이사진 촬영, 위탁가정 미니장터 운영, 거리설문조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5월 22일 제주시 청 어울림마당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행

‘아이사랑 행복카드’ 인기

출시 40일 만에 가입 1000가정 돌파

3자녀 이상 가정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사진>가 인기를 끌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비씨카드(주)와 함께 다자녀 가정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가입자가 1000가정을 돌파했다.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는 민·산·관 협력프로그램 차원에서 지난 3월 12일에 3개 기관이 업무제휴를 맺고 4월 중순부터 발급을 시작해 40여일 만에 1000가정을 넘어섰다.

도내 3자녀 이상을 가진 가정 중 막내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1만5000여 가정을 가입대상으로 한 ‘제주

아이사랑 행복카드’는 건강검진, 보육, 학원 수강, 이육식·유아용품·자동차 구입 등에서 다양한 우대·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도와 농협, 비씨카드(주)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개통, 기념 이벤트 개최, 출산장려 포어공모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가입대상 가정의 관심을 유도한 결과 다른 시·도의 가입실적과 비교해 비교적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인천광역시 대상가정 2만9512가정 중에 900가정, 전라북도 11만 2000가정 중에 700가정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목표인 2500가정 가입을 이달까지 조기에 달성하고, 7월 이후에



는 협력 가맹점 추가모집 등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해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카드이용 혜택뿐만 아니라 3자녀 이상 가정을 증명하는 ID카드로 활용해 관광지 관람 등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하여는 출산·육아·교육 등에 다양하고 특화된 시책을 추진해 ‘아이가 많아서 웃음이 많고 행복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다출산 문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제장북 ‘청소척척’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선정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이동청소용역사업단 ‘청소척척’이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제장북은 최장 3년 동안 최저임금(월 7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청소척척’은 건물청소용역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사무실청소와 공공화장실 용역사업 등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문의=064)702-6543.

서귀포보건소 2년 연속 모자보건 ‘우수’

서귀포시보건소가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한 2008년도 전국 모자보건사업평가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지자체 251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모유수유율 제고사업, 불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 장려금 지원 등 지난해 모자보건사업 전반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평가로 이뤄졌다.

서귀포시보건소는 지난해 저출산 고령화 대책 일환으로 추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26명의 소중한 생명을 탄생시키고, 출산가정 85세대에 신생아 도우미를 파

견하는 한편 151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건강한 아기 탄생을 위한 임신육아교실 운영, 임신부 건강진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지원,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 등 다양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서귀포보건소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가 주최한 제9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10명이 참가해 9명이 수상했으며,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가 주최한 제1회 삼다가족 실천대회(다자녀가정 선발대회)에 10가정이 참여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사업대상자 공모

10~16일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증장애인 특별보호 대책의 하나로 서귀포시 지역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접수일 현재 제주도에 사무소를 두고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시설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회복지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시설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소유하고 조정 및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자체부담이 가능해야

한다.

서귀포시 사회복지과로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은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에 게재돼 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11곳의 장애인생활시설이 있는데, 이중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5곳은 모두 제주시 지역에 있다.

문의=제주도 노인장애인복지과(710-2831~2).

청소년상담지원센터-보호관찰소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박한샘)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재봉)는 5월 7일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지기를 지원하

고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제주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지기를 지원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향후 공동 연구활동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업무협약으로 지역사회 내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부족한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위기 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제주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평가했다.

박재봉 소장은 “보호관찰은 지역사회 구성원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한샘 소장은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제주보호관찰소와 활발한 협력사업을 벌여 위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성장애인들의 희망 찾기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용언)은 저소득 여성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직업창출을 위한 독서치료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 중순부터 여성장애인 25명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번 교육은 45시간의 기본교육을 비롯해 자격시험 대비교육, 치료실습을 위한 지원, 도내 사회복지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 형성 등의 사후 관리가 10월까지



이어진다.

한편 지난해 탐라복지이 주관한 독서지도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 중 3명은 현재 도내 사회복지기관에서 독서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축구공에 날개를 달아 높이 날래요”

창단 18개월 축구팀 Top FC CJ컵 전국대회 우승 ‘화제’

창단한 지 1년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제 일지역아동센터(원장 박영식) 유소년축구 팀 Top FC가 처녀출전한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화제가 되고 있다.

Top FC는 CJ나눔재단과 대한민국공군 주최로 5월 9일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3회 CJ컵 도너스캠프 전국축구대회에서 제주대표로 출전, 3전 전승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Top FC는 8강전에서 광주대표를 3대1로 쉽게 눌렀으나 준결승전부터는 다른 지역 선수들에 비해 훨씬 체력이 왜소한 선수들이 체력의 열세를 보이며 모두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벌인 끝에 감격의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이 확정된 순간 박영식 원장의 머릿속에는 축구팀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축구를 하고 싶은 아들의 꿈을 반대한 아빠가 간식거리를 들고 훈련장을 찾아 아들을 조용히 응원한 일 등 지난 1년 6개월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박 원장은 “그동안 갈비를 제공했던 고깃집 사장님과 우유와 도넛을 보내줬던 사



장님,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승리의 원동력이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또 축구팀을 창단하고 18개월 이상 운영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은 SK에도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박 원장은 “다들 한 가지씩 아픈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마치 축구공에 날개를 달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비상하고 싶은 욕구와 바람으로 신나게 즐기면서 맹연습을 했다”며 “아이들의 땀과 노력이 성공의 빛으로 발휘돼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더 큰 꿈과 포부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애정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며 “아이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내 넓은 세상 속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힘을 키워주겠다”고 강조했다.

제일지역아동센터는 함께 출전했던 여자 피구 경기에서도 우승했으며, 제주는 4위에 올라 종합우승까지 차지해 2배의 기쁨을 누렸다. <이명자 명예기자>

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길 직업
재활센터
양은심<사진> 원장이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

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 복지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양 원장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7년여간 공직에 재직할 당시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해 농어촌지역 지체장애인을 위한 ‘월케어 보내기 운동’을 추진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섰다.

또 CBR(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 등에 기여했으며, 2001년부터는 격년마다 ‘사랑방 작은 음악회’를 열어 정신장애인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등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했다.

소/식/마/당

농협 ‘사랑을 배로 나눔’ 행사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신백훈)는 5월 7일 제주종합경기장 앞에서 ‘사랑을 배로 나눔’ 행사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67개 사회복지기관에 배 15kg들이 200상자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와 지난해 감귤소비촉진운동에 도움을 줬던 배 주산지 주민들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이뤄졌다.

2008년 하늘이의 봄나들이



제주장애인요양원(원장 정석왕)은 5월 2일 제주한라유니콘과 함께 한림공원에서 2008년도 하늘이의 봄나들이를 실시했다.

이날 나들이에서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가슴속에 담아뒀던 고마움을 전하는 엽서를 쓰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장애인 공직 및 대기업 채용 설명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주지사는 5월 20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주지역 고학력 장애인을 위한 ‘제주지역 장애인 공직 및 대기업 채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40여명의 구직장애인이 참석해 정부의 균형인사정책 및 최근 달라진 장애인 공직 채용정보, 제주지역 대기업의 장애인 채용정보 등에 대해 경청했다.

중앙동경로당 무료진료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관장 전영록)은 서귀포의료원(원장 양재식)과 연계해 5월 16일 서귀포시 중앙동 경로당을 찾아 순회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노인성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월 1회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이뤄지는 순회 진료는 11월까지 이어진다.

행복한 우리가족 난타 관람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제주지부(지부장 이시권)는 5월 17일 제주영삼미디어센터에서 결연가정 30가정과 함께 ‘행복한 우리가족 난타 보러와수다’라는 제목으로 난타 공연을 관람했다.

이날 난타 공연 관람은 문화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저소득 가정에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가족이 함께 관람함으로써 가족 간 친밀감을 쌓는 시간이 됐다.

2008 평화의섬 마라톤대회 참가



가롤로의 집 생활인들은 4월 27일 (주)제민일보사 주최로 열린 ‘2008 평화의 섬 제주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열정의 레이스를 펼쳤다.

이날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생활인 모두 완주했으며, 특히 처음 출전한 8~10세 어린이들도 불굴의 의지로 레이스를 마쳐 주위의 찬사를 받았다.



“마음으로 리듬 타요”

제주도농아복지관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의 지원을 받아 3월 11일부터 매주 2회(화·수요일 오후 7시~8시) 댄스스포츠교실을 복지관 강당에서 운영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고 있는 댄스스포츠교실은 취미생활을 겸해 농아인의 여가생활을 활성화시키고 농아인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개설됐다.

댄스스포츠교실에 참가하고 있는 농아인들은 음악 소리를 듣지는 못하지만 서로에게 몸을 의지한 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제주도농아복지관 관계자는 “댄스스포츠는 농아인의 신체적 발달은 물론 균형감각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서 “농아인들이 비록 음악을 들을 수는 없지만 서로의 움직임을 느끼고 마음으로 리듬을 타며 즐겁게 참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중 운영되는 댄스스포츠교실에 참가를 희망하는 농아인은 제주도농아복지관의 문을 두드려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 문의=064)711-9094~6.

Column 칼럼

제주미래상 '다문화 사회' 로 가꿔나가야



김 범 훈

제주일보논설위원

지난 5월 20일 제1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이 제주 한라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렸다. 일주일간 제주다민족문화제 등 문화행사도 곳곳에서 다채롭게 펼쳐졌다. 지난해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처음 마련된 세계인의 날 면모들이다. 이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외국인 등 지원조례에 힘입은 바 컸다. 제주사회가 지난해 말 기준 4000여명에 이르는 도내 거주 외국인 이주민과 그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공동체를 이뤄나가고자 함이다.

이주여성·2세차별 여전

이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주민을 지역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이해하고 따듯이 품으려는 지원과 배려, 봉사는 차츰 눈에 띈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가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모든 면에서 볼 때 여전히 미흡한 게 사실이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만 해도 상당수는 합당한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소외되고 차별과 멸시를 받고 있다. 2세대 역시 마찬가지다. 말로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떠들면서 실상은 이들 가족을 이웃이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인색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 인식이 편협한 결과다.

하지만 이는 본질을 모르는 후진적 자세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이제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제결혼의 급증세다. 지난해 전체 결혼 건수 가운데 국제결혼 비중이 10%에 가까웠다. 남자 10명 중 1명이 외국인을 아내로 맞았다.

이런 추세라면 이들의 가정 자녀수도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전국 국제결혼가정의 초·중·고교생 수를 조사한 결과, 4월 30일 현재 1만8769명으로 지난 2년 새

두 배로 꺾충 뛰었다. 우리사회가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단일민족 집착벗어나야

세계적으로도 외국인 이주민들이 없는 나라가 없다.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유전형질, 언어,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균질적인 사회를 견지해 왔다 해도 국제사회는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과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공존의식의 발로다.

그럼에도 이들을 소외시키고 방치하게 되면 우리는 머지않은 장래에 커다란 사회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프랑스 등에서 번지고 있는 인종갈등과 같은 문화충돌 현상을 배제할 수 없다. 사회학자들은 문화충돌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비용은 한국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화(禍)나, 길(吉)이나 하는 제주의 미래상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하루빨리 단일민족이란 신화와 집착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국제자유도시다운 다문화 시민의식을 가꿔나가야 할 시점이다.

時論 시론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얼마 전 필자는 졸업생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제자는 졸업 후 노인시설에 취업하여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소명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화속 제자의 말을 듣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



고 보 선

제주산업정보대학 사회복지과교수

비스는 대상자 중심에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필자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자는 흥분된 어조로 “교수님, 저는 더 이상 어르신들을 속일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서비스를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라고 했다. 지금까지 자신의 실천의지의 중심축이던 열정과 자부심이 통째로 빠져나간 기분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시행 1달 앞둔 노인장기요양보험 ‘꼭 열음’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앞두고 노인시설들은 기존의 전문 인력과 서비스 질을 유지시키는 방법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으며, 일부 노인시설들은 시설유지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노인시설들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설노인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따라 시설의 보조금 및 보험 수가가 달라져, 요양 1등급 노인으로 입소정원을 채우지 않는 한 시설의 운영비 부족을 초래해 우수인력 손실은 물론 직원들의 사기저하, 저임금의 요양보호사 채용으로 서비스 질 하락과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가 담고 있는 내용과 실천방향에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가 필수적인 실천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인력구성으로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노인시설에서는 운영비 확보를 위해 어르신들의 재활보다는 요양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던 사회복지프로그램이 축소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이 좀 더 나아지거나 미소 짓는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인간으로서의 욕구가 없단 말인가? 누구를 위한 제도이고 서비스란 말인가? 노인부양 기피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확대시킨다는 것이 노인으로부터 미소와 삶의 의욕을 없애는 것에 불과하다면 노인을 보기 좋게 포장하여 고려정(高麗葬)시키는 것이 아니니 무엇이었는가?

장기요양보호제도 실시를 앞두고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특정 집단의 이기적인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이들에게 묻고 싶다. 노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하는지, 열악한 직원 처우와 서비스 축소를 생각하는 일부 시설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사회복지 철학이 부족하다고 비판할 수 있는지 말이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모두 하루하루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寄稿 기고

소외계층 위한 제도가 '소외감' 키운다면



정 석 왕

제주장애훈양원장

아무리 좋은 복지제도와 정책도 지나친 소비성에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따른다. 우리나라의 현 경제·사회적 상황과 같은 위기의 진앙지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상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팽배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전에는 정부가 '복지국가론'을 천명하던 것이 이제는 '시장복지서비스'라는 명분으로 그 목표가 바뀌면서 국가의 책임이 축소되어진 느낌이 들며, 이는 자칫 실무 정책입안자들에게는 '국가책임의 부재'라는 왜곡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의식개혁이나 직업교육 등 생활훈련의 대상조차 될 수도 없고, 이미 사회안전망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격마저 황폐되어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취약 계층이 구석 곳곳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이들에게는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오늘의 생존을 위한 절대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효율적 복지'는 '최소비용'의 복지를 추구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사회가 소비적인 복지혜택의 지원 형태를 기피하고, 스스로의 노력을 통한 자기책임을 너무 과다하게 수혜 대상자에게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려운 국가경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경쟁력과 효율성이 한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류 때문에 국가의 생존을 고민한 끝에 복지부에서 조차 효율성을 추구하게 된 상황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경제성장 제일주의의 이상이 질게 가리워져 있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으며, 아직 우리나라는 복지부분에서의 국가역할이라는 것이 초보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책임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가치 형태는 그 책임과 역할이나 목표가 분명하게 규명되어지지 않은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자칫 무책임한 사회구조로 되돌아가는 혼돈과 와해를 가져올 수가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시선의 끝은 여기가 아니라 더 멀리 '복지국가'가 정착되는 시점이며,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지배했던 경제성장 제일주의의 정책패러다임이 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복지는 '효율성'이 아니라 '효과성'을 추구해야 한다. 복지에 있어서 '시장기능'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복지재정의 팽목할만한 확충으로 발현되어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반열에 올라서는 원년으로 점철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일배움터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서비스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과 존중을 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고자 설립된 장애인 일터입니다.

화초관리사업 · 꽃 배달 서비스 실시



▲ 세상에 하나뿐인 도자기화분



▲ 축하 화환 / 근조화환



▲ 행사용 코사지
꽃바구니, 꽃다발



▲ 서양란, 동양란
축하화분, 관엽화분

주문 즉시 제주도내 전 지역으로 **배달**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수익금전액은 장애인직업재활사업에 쓰여집니다.

- 주문전화 Tel. 064-723-9104 Fax. 064-723-9105 (직접 방문 대환영)
- 인터넷카페 <http://cafe.daum.net/ilbaeumteo>
- 결제방법 카드결제 / 무통장입금 (농협 901022-55-002495 작업활동센터 일배움터)